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治病장수 百歲건강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906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음력 10월 15일)

사상 최다 국비…광주 3조9천억·전남 10조 시대 열었다

2026년 정부 예산 확정

전년比 市 16%·道 10% 증가 성과

姜시장 "역대 최대…주요사업 탄력"

金지사 "도민 체감 사업 신속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 각각 3조9천497억원, 10조42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다 국비 반영액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세제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광주는 전년 대비 16% 증액에 성공했고, 전남도는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천49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3조3천858억원보다 5천639억원(16.6%)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 8.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내년 정부 예산에는 5·18 구묘역 민주공원 조성 사업 등 '빛의 혁명'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등 '부강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됐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매월 국비 보고회를 열어 국비확보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강화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들이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을 면담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10조42억원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9조502억원 대비 9천540억원(10.5%) 증가한 액수다.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9조4천188억원과 비교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5천85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AI 첨단 농수산 분야 핵심 사업을 다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등 핵심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2018년 6조원에 불과했던 국비 규모가 민선 7·8기 김영록 지사 체제에서 8년 만에 10조원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매월 국고 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게 주효했다.

강기정 시장은 "AI, 모빌리티, 문화, 민주인권, SOC 등 주요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반영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 전남도의회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4·6면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社 告

전남 서부권 리더를 모십니다

목포 등 서부권 리더 대상 고품격 강의…내년 4월 개강

인적네트워크·원우회 활동

광주매일신문이 목포 등 전남 서부권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3기 전남 글로컬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함께 할 원우를 모십니다.

전남 글로컬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남 서부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CEO와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사업가,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입니다.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다혜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 이승재 영화평론가 등 각 분야 최고 강사진의 열정적인 강의와 다양한 기획 특강 등을 통해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원우회 차원에서 골프·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광주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기 전남 글로컬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고품격 강의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교육기간 : 2026년 4월 개강-11월 종강 (연 12회 강좌)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자·관리자, 지자체장·지방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 시간 : 격주 목요일 오후 7-9시(6시부터 식사)
- ●강의 장소 : 신안비치호텔
- ●모집 기간 : 2026년 3월 말까지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07·2074